

마술의 진실, 혹은 미필적 고의의 진앙지

서남아 지진 해일, 그리고 '머니 게임'

글 | 임동헌

통계는 '마술'이며, 나아가 '속임수'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조사는 대표적인 마술이자 속임수에 속한다. 인구조사를 하는 사이에도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데다, 태어나고 죽는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작용해 통계학자들을 고뇌에 빠뜨리는 것이다. 거기에 서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면 인구 통계의 정확도는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축소시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울 수 있다. 아무도 안 믿으려 할 수 있고, 통계의 신뢰도 역시 무시될 수 있다. 그 1,000명을 다시 100명으로 줄여 어떤 논리를 도입한다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63억 명인지 62억 명인지도 믿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100명으로 축소시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니다. 고도의 축소는 고도의 상징을 낳는 법. 통계는 마술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세계 인구를 1,000명, 100명으로 축소시켜 들여다보면 단순하지만 깊은 위의威儀를 발견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늘 접하는 단순한 수치를 통해 지능적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흰소리의 방향을 돌리겠다. 서남아시아 해일 지진 사건의 한 과장은 '머니 게임'의 양상이다. 이번 해일 지진의 특성은 피해 당사국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환경 재앙이며, 환경 재앙은 세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형성돼 있다. 단지 그런 환경 재앙이 '아직'은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머니 게임'의 단서가 포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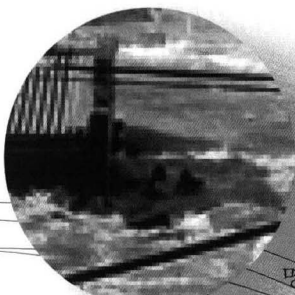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건 발생 이후 5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가 망신을

산 뒤 5,000만 달러 지원으로 급선회했다. 미국 역시 1,500백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가 국제 망신을 당한 후 3,500백만 달러에서 3억5,000만 달러의 증액 순서를 밟으며 또 한 차례 망신을 당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쓰는 단 하루의 전쟁 비용이 1억5,000만 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일본은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처럼 '선행'을 한 셈인데, 다른 나라의 액션을 지켜보다가 배팅한 점을 감안하면 역시 초정밀 국가답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머니 게임의 진앙지는 어디인가. 세계 인구를 1,000명, 100명으로 환산한 통계의 마술, 혹은 속임수로 돌아가보자. 미국의 환경학자 도벨라 메도스(1941~2001)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칼럼에서 '세계가 만일

1,000명의 마을이라면'이란 가정법을 도입한 후 '이 마을에서는 비료의 83퍼센트를 40퍼센트의 농지에 뿌리고 있다. 이 토지는 아주 잘사는 270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 과잉 비료가 호수나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통





계의 마을'을 보여 줬다.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환산한 그의 반짝 아이디어는 62억 명, 63억 명을 들먹거리는 것 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2002년 나온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국일미디어)은 그러니까 도넬라 메도스의 역발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셈이다.

일본인 이케다 가요코가 엮은 이 책은 68쪽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앞에서 언급한 '머니 게임'의 진양지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짚어낸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퍼센트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퍼센트를 차지하고 겨우 2퍼센트만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퍼센트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퍼센트를 쓰고 있습니다'는 환경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명치를 맞은 느낌을 주면서 깨닫게 한다.

마을은 계속 이어진다. 마을 사람 100명 중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다. 이 통계의 외연을 보면, 미국은 기독교 단일 종교 국가이고, 그들은 지금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라크로 진지를 옮겨 놓은 상태이다. 거기서 그들은 하루에 1억5,000만 달러 수준의 전비를 쓰고 있다. 만일,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 한 곳에 라이언 일병이 남아 있었다면 미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35억 달러라도 썼을 것이다. 왜,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서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사건 성금으로 내놓은 3억5,000만 달러가 어떤 질량을 가진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구도 때문이다.

지진 해일 사건은 서남아시아를 강타했지만, 환경 대재앙을 일으킨 에너지의 80퍼센트는 정작 미국이 쓰고 있다. 3억5,000만 달러는 많은 돈이지만 서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 해일 사건을 덮기에는 적은 돈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 세계 모든 나라의 흥중에는 '환경 재앙이 계속 닥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원금을 내야 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알팍한 계산이 들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통계의 마을에서 비켜서 보자.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최근 희곡과 소설의 경계에 해당되는 《인간》(열린책들)을 발표했다. 《인간》의 기둥 줄거리는 지구가 멸망한 뒤 우주의 어느 행성 유리 감옥에 갇힌, 인류 최후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인류를 변호하고 심문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라울'이란 이름의 남자는 법정에서 '인류에겐 침략하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욕구가 있었다'고 '냉소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냉소의 극점은 '우리에겐 학교와 병원이 있고 양로원과 고아원이 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들이다. 우리는 관대하고 선량한 존재들'이란 주장에서 나타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것이 진정한 연대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인류는 관대하고 선량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국가는 인간이 유지 발전시켜 온, 전대미문의 조직적 유기체임에 분명하다. 그 조직적 유기체는 그러나 '양로원'과 '고아원'을 양산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가는 노인·아동들과의 차별을 낳는다. 이를테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케다가요코 구성 | C. 더글러스 루미즈 영역 | 한성례 옮김 | 국일미디어 | 80쪽 | 값 6,800원
《인간》(DVD 포함)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158쪽 | 값 8,800원



이어령, 이해인, 한비야, 서홍관은 읽는 세계 마을 KBS (TV 책을 말한다) 선정 도서!



서남아시아가 아닌 곳에서 해일 지진이 발생했다면 각 나라의 지원금 액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는 환경 재앙에 미필적 고의가 개입된 지원금 액수를 보면서 가누게 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씁쓸함이다. 그것은 관대하지 않고 선량하지도 않은 존재들이 벌이는 '머니 게임'의 실체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자, 과연 마을은 누가 벌이고 있는가. **이문**



● **이 글을 쓴 임동현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등의 사진 에세이집을 냈으며,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다.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이다.